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신부와 벽돌공》 펴낸 제정구 의원

해치고 스스로를 해치는 사례가 빈번한 요즘 상황에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상입니다.”

한때 구도자를 꿈꾸기도 했다는 제의원에게 삶은 완성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수행(修行)이다. 판자촌이든 국회든 형태가 달라졌을 뿐 다 같은 구도의 장일 따름이다. 언제든 벽돌공같은 막노동꾼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제의원은 때때로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이 건디기 힘든 십자가요 전생의 업보처럼 여겨져 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하다. 그런 그에게 성서는 이른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정치는 그에게 쟁기다. 제의원은 현재 ‘국민통합추진위’ 사무총장직을 맡아 구시대 정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정치풍토를 일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박남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정치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고 희망이다. 14대에 이어 민주당이 참패한 15대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둬 재선된 제정구(54, 민주당)의원은 아직 가난하다. 그는 아직도 양평동 철거민들과 함께 집단 이주해 직접 터를 고르고 벽돌을 찍어 일군 터전인 시흥동 ‘복음자리’ 벽돌집에 산다. 그가 최근 자신의 지난 삶을 정리한 책 《신부와 벽돌공》(비전 21)을 펴냈다.

“나도 많지 않고 내세울 만한 이야기도 아니어서 책 내는 일을 극구 사양했는데, 함께 빈민운동을 했던 후배가 출판을 하도 강권하는 바람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의원에게는 ‘원치 않았던 자식’이 된 이 책은 출간의도나 담고 있는 내용이 여느 정치가의 에세이와는 성격을 달리해 눈길을 끈다.

‘빈민운동의 대부’로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의 삶은 철거민들이 붙여준 그대로 ‘천막 사이사이’의 삶이었다. 왕십리·상계동·양평동·목동. 재개발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철거현장마다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제의원이 살아온 이야기가 무엇보다 큰 감동으로 읽히는 것은 그가 빈민을 대상화한 ‘운동’을 했다가보다는 가난하게 살기 위해 애썼다는 것이다.

판자촌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에 비키니 옷장과 껌같은 ‘사치품’을 샀다며 아내와 다툼을 벌이고, 폐렴에 걸린 아이를 병원에 보낼 돈이 없어 동동거린 일 등 이제 그에게는 다 지난 에피소드에 불과할지도 모를 이야기들은, 더 갖고 싶은 욕망이 남을



과학의 골목을 조감하는 ‘작은 산’

《과학이야기》 펴낸 kwak영직씨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천동설과 지동설이 별의 일생으로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는 동안 생물학 분야의 진화론과 물리학 분야의 원자 발견이 교직된다. 원자의 발견이 겐만의 퀴크이론으로 더 작아지는 동안 생물학은 인간복제를 눈앞에 둔 유전공학으로 발전했다.

“생물학·화학·천문학 등을 넘나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미시적인 부분은 다른 전공교수들에게 내용의 정확성을 일일이 검토받았습니다.”

과학을 ‘진리로 향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kwak영직에게, 과학은 결코 토를 달 수 없는 현대의 ‘어명(御命)’이라고 가르치는 과학교육이 마땅치 않다. 또 한두번의 실험이나 관측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경솔함이 탐탁할 리 없다. 이 때문에 《물리학이 즐겁다》《큰 인간 작은 우주》《원자보다 작은 세계 이야기》《자연과학의 올바른 이해》 등 먼저 출간한 책이 과학교육에 작은 역할이라도 했으면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생활 속의 물리학’을 5권 정도로 집필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유체역학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 이현주 기자

《과학이야기》(사민서각)는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쓴 과학의 역사다. kwak영직 교수(45, 수원대 물리학과)는 과학을 ‘모르겠고, 어렵고, 재미없게’ 만드는 것이 과학사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과학은 복잡한 수식풀이가 아닙니다. 과학의 역사는 과학이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심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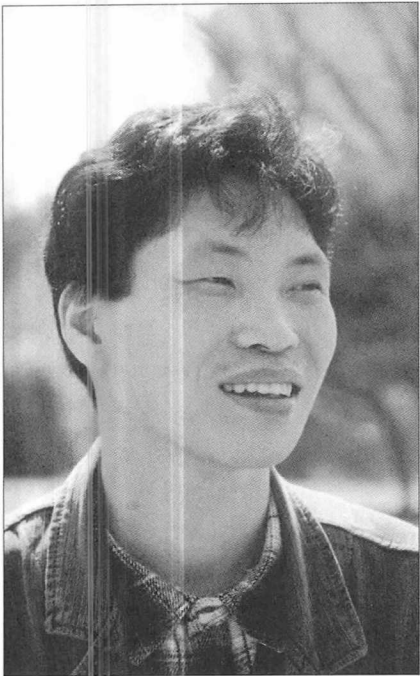
고대 학문에서 과학과 철학이 한몸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최초의 철학자들은 자연현상을 신의 섭리와 떼어 이해하려는 데서 과학을 발전시켰다. 그 이후 과학은 철학과 헤어져 우주·물질·생명의 문제로 분화해 나갔다.

“과학의 모든 활동은 결국 이 세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관심분야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 아닙니까?”

하지만 과학의 세분화·전문화가 과학을 수식으로 가득찬 ‘끝을 알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만들었다. 과학의 성과가 가장 눈부셨던 19세기 무렵에는 철학자와 과학자는 서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복잡한 이 골목길을 한눈에 조감하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작은 산’이 되길 자처한다.

이 책의 첫장 《과학이란 무엇인가》에서 과학과 철학은 화해한다. 여기에서 과학은 ‘이성을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이 책은 과학의 성과를 병렬식으로 늘어놓지 않고, 각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과 자연 관계의 변천, 과학 각 분야의





기억을 구부려 만든 겹겹의 의미망

《빵냄새를 풍기는 거울》 펴낸 박형준씨

두번째 시집 《빵냄새를 풍기는 거울》(창작과비평사)을 펴낸 박형준(31) 시인은 66년생이다. 소설에서 63년생 작가들이 무리를 이뤄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면, 시에서는 66년에 태어난 시인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90년대 등단한 저희들은 시의 시대라 불린 80년대의 선배와 영상 감각으로 무장한 이른바 신세대 사이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어중간한 축들입니다.”

함께 문학수업을 했던 동료들이 대부분 문학을 포기했고, 지금 남아 있는 벗들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인다. 60년대 후반 출생한 작가들의 어려움은 바로 문학이 처한 곤경을 대변하는 듯하다.

박시인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알찬 시작업을 통해 평단의 주목을 받는 시인이다. 91년 《한국일보》신춘문예에 〈가구의 힘〉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고, 94년 첫시집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련다》(문학과지성사)를 펴냈다.

시인은 풍요로움을 꿈꾼다. 첫시집이 눈자위나 이마의 주름 같은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주는 자취들에 주목했다면, 이번 시집에서는 연못·무덤·노인 같은 대상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응시를 통해 ‘언어의 풍요’를 꿈꾼다. 구멍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동굴 이미지로 변용되어 나타난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공원 벤치에서 입을 벌리고 잠자고 있는 노인에게서도 똑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일몰의 나무들〉은 두시간 넘게 잠든

노인을 관찰한 결과다. 이런 응시는 혼자일 때나 즐거운 일이지 둘만 모여도 감흥이 일지 않는다고 시인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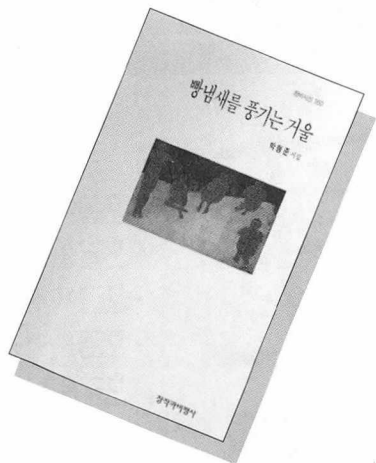
첫시집을 5쇄나 찍었지만, 박형준의 시세계는 녹록치 않다. 의미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그의 시를 읽는 하나의 독법이 될 수 있다. ‘기억을 구부려’ 시를 빚은 까닭이다. 단순한 의미전달로 시가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겹겹이 의미망을 둘러친 때문이다.

시집을 엮을 때는 전체의 구성에 신경을 쓴다. 이번 시집은 거꾸로 읽어내려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귀띔한다. 시집의 맨끝을 장식하는 〈무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자신을 모두 드러낸 작품이라며.

젊은 시인으로는 드물게 진지한 ‘시적 하강작업’을 하고 있는 박형준 시인에게 시는 어떤 물건일까?

“시를 쓰지 않았더라면 황폐한 삶을 살겠지요. 시를 매개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박형준 시인은 《도서신문》의 기자로 ‘책들의 하인으로 일’(〈어떤 방2〉)하는 데 바쁘다. — 최성일 기자



생활에 응용되는 합리적인 경제마인드

《31가지 테마가 있는 경제여행》 펴낸 오영수씨

오영수는 시장경제상황에 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은 경쟁관계에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장경제와 경쟁과 정보화사회는 함께 굴러가고 있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며,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창의와 경쟁력이라고 덧붙인다.

“어떤 목적을 위해 ‘윤희유’로 쓰이는 그런 돈은 항상 무언가 투명하지 않는 거래를 수반하게 되고 그 최종적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주인 없는 돈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소비와 윤희분위기를 조장하고 물가와 지가상승을 조장하는 원천이지요. 이런 눈먼 돈을 없애고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기술개발에 힘쓰는다면 우리 경제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지역간 물분쟁(Transboundary Water Conflicts)’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고 있는 오영수는 다음 저서로 중고생을 위한 또 다른 경제여행을 구상하고 있다.

— 마정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에 대한 셀러리만의 관심이 높다. 불황과 정리하고, 명예퇴직의 스트레스가 블랙유머로 회자되고 있는 요즘, 경제이론과 논리를 우리 실정에서 좀더 알기 쉽고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한 오영수 교수(42, 경북대 경제학과)의 《31가지 테마가 있는 경제여행》(사계절)은 그런 맥락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인 만큼 현실과 유리(遊離)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경제이론은 현실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이론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서적을 쓰게 되었지요.”

그의 책에 들어 있는 소재들은 경제서적 같지 않다. ‘은밀한 유희-수요’ ‘홍부가 기가 막혀-효율과 공평’ ‘좋은 사과는 다 어디로 갔는가?-상대가격의 변화’ ‘미키마우스의 고민-가격차별백태’ ‘태양은 가득히-범죄의 경제학’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파-외부성 경제학’ ‘별헤는 밤-환경오염의 경제학’ 등 어려운 경제개념과 경제수치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썼다.

“경제마인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차원, 특히 정책의 입안자나 집행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합리적인 ‘경제마인드’라는 것은 곧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다는 사실, 편익이 있으면 비용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여 그 편익과 비용의 적절한 지점에서 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겠지요.”

